

지혜와 부와 권력보다 중요한 복음

-복음으로 여는 열왕기상-

열왕기상 11:1-8, 에베소서 6:1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이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대단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사탄은 이길 수 없다. 복음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지혜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과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있는 왕들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훨씬 더 잘 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 하나님보다 내 성공을 좋아한다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못나도 선하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악으로 이겨보려고 해보라. 정말로 악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기다리며 선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다 양보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더 온전하신 것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바보 같이 사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과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RUTC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 오직 영원한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237나라와 지도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열왕기상서는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이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주로 악한 왕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이때 쓰임 받은 인물이 남은 자 70인 제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오바다이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어떠한 악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상황 일지라도 오직 복음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으로 70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솔로몬 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는 과정과 왕이 되었던 초창기에는 선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1)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일천번제를 드렸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을 때 보면 우상숭배를 한 것이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지 한 번 되새겨 보라.

(2)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여 전무후무한 축복

을 약속 받았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복음과 선교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3) 열왕기상 4장 7절을 보면 12지방에 관장을 두어 매달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다. 행정도 아주 잘했다. 그러나 복음으로 결론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4)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매일의 일과’(에배, 서밋타임)대로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와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일년의 세 절기 무교절(유월절)과 칠칠절(오순절)과 초막절(장막절)에 드렸더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행위였다.

(5) 열왕기상 5장에서 6장에 보면 왕궁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성전건축을 하였다. 열왕기상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칠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팔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삼천삼백 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설계적인 능력, 역학, 수학,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복음은 약했다.

(6) 열왕기상 6장 22절에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만큼 풍요로웠다.

(7)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면 성전을 지은 후에 왕궁을 지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무려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

(8)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감동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9) 그 결과 솔로몬의 왕국은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5절이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딤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10) 그러나 솔로몬이 늙은 후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이때까지 사실 솔로몬은 복음과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밑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후궁이 칠백 명이며 첩이 삼백 명이었다. 그리고 산당을 지었다. 성전을 지은 실력을 가지고 산당을 지은 것이다. 우리는 성공 후,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끝까지 우리들의 교만과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는 왕들의 악한 모습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반부에는 점점 불신앙적이며 타락한 왕으로 변질되어갔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영적인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하고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타락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2)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였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이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믿음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했을 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서 삼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이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9절에도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이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우상이 된다. 사탄은 그것을 통로로 해서 무너트린다. 그것이 자녀, 성공, 돈, 자존심, 무능,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나를 망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리게 된다.

(4) 열왕기상의 후반부에는 아비암 왕, 아사 왕, 나답, 바아사, 엘

라, 시므리, 오므리 왕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악한 행동을 한 왕들이었다. 이후로 아합 왕이 등장하고 있다.

(5)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7대 왕이었고 그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다. 또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왕비였다. 그러나 그 때에 가장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최고의 중직자 오바다가 나왔다. 그들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영적인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하였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어려운가. 그 때 여러분이 오히려 영적인 주역,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설 수 있는 기회이다. 그때 정신 차리고 더 선하고 지혜롭게,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 생명 걸고 헌신해야 한다.

(6) 다음으로 열왕기상에 등장한 왕은 여호사밧 왕이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대 왕이다. 그는 영안이 어두워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정치적인 문제로 며느리를 삼은 것이다. 아달라가 모든 왕자를 죽이려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다윗 왕조의 혈통이 사라질 뻔하였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7) 아하시야는 열왕기상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아들로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과 같이 온갖 악한 행위를 하였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결론으로 오늘도 열왕기상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와 왕도 불완전하고 어떠한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도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의 왕 중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분은 지금 역사하는 사탄 흑암 세력을 꺾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일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그리고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플랫폼과 파수망과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 받을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에는 나의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악한 부분과 잃어버린 믿음 위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시스템을 셋팅하기 위해 세상적인 지혜와 부와 권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과 램넛들이 되기를 축원 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참된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순간도 사탄에게 빼앗기는 세월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